

어설피품에 관하여

손보원
기획팀

2014년 10월 17일 저녁. 나는 한 청년이 사무실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있는 장면을 TV를 통해 바라보고 있었다. 드라마 <미생> 첫 화에서 나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매력적인 자태를 뽐내는 안영이의 '엱뽕' 판매 장면도 아니었고 장그래가 바둑으로 바이어를 홀리는 장면도 아니었다. 내가 혼을 빼놓고 미생을 챙겨보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 어설피폰 정장을 입고 사무실 주변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장그래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삼 일 후 10월 20일 아침.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푸른색 윈도우 배경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마치 드라마 속 장그래처럼 말이다. 신드롬이니 계악직의 설움을 담았다느니 하는 <미생>에 대한 세간의 평가도 의미가 있겠지만, 나에게 있어서 이 드라마는 현실 그 자체였기에 무척이나 의미 있게 다가왔다. 물론 10월 20일의 신입사원은 10월 17일의 장그래보다 더욱 어설피었다.

막장, 판타지 드라마의 홍수 속에서 종종 건져 올리고는 보물 같은 드라마들의 공통된 특징은 하나같이 무엇인가에 서툰 인간 군상들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드라마 <미생>이 인기 가도를 달리기 시작할 즈음하여 종영된 드라마 <유나의 거리>에도 어설피폰 것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인물들이 무수히 많이 등장한다. 남 앞에서는 한껏 허세를 부리지만 집주인인 옛 후배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한물간 건달이라든가, 남자를 홀려서 사는 것보다는 '깍지'를 터는 것이 더 착한 일이라는 소매치기, 누나에게 얹혀사는 백수 동생, 은퇴한 형사가 바로 그 인물들이다. 영화에서도 이러한 유형의 인물들은 자주 등장한다. 영화 <중경삼림(重慶森林)>의 금성무와 양조위라든가, 홍상수 영화 속 남자주인공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몇몇 마이너 한 코드에서 어설피폰은 '찌질함'이라는 용어로 치환되어 사용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이 '찌질함'을 선봉에 세운 <찌질의 역사>라는 웹툰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드라마, 영화, 웹툰 속 인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한껏 '찌질함'을 선보인다.

이렇게 인물들의 서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얻어내는 가장 큰 효과는 드라마의 현실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주변의 누군가가 한 번쯤 했던 어리숙한 행동들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드라마들은 이 공감을 통해 다른 드라마보다 한 차원 높은 현실성을 얻는다. 물론 모든 드라마는 어느 정

도의 비현실성을 내포하고 있어야 할 것인데, 만약 그렇지 않고 한다면 그것은 다큐멘터리와 다름없어지기 때문이다. <미생>이나 <유나의 거리>를 비롯한 작품들도 비현실적인 부분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판타지에 지나지 않는 내용이라 평가절하할 수 있다. 또 현실적인 것을 보려면 <인간극장>과 같은 다큐멘터리를 보는 편이 한결 더 낫다고 지적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막장, 판타지 드라마와 다큐멘터리의 중간 어디쯤 놓여있는 이들 드라마를 즐겨보는 이유는 이들 작품이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위로 같은 것을 주곤 하기 때문이다. 막장, 판타지 드라마는 권선징악을 필두로 한 이상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인지 나는 이들 드라마를 볼 때 공감을 하거나 위로를 받지 못한다. 장보리와 같은 천사나 연민정 같은 악녀가 현실에 존재하기 어렵기에 마치 딴 세상 이야기를 하듯만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반면 다큐멘터리는 이상을 완벽히 배제한 현실 그 자체다. 그리고 다큐멘터리는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때로는 잔혹하기까지 하다. 그 때문에 나는 다큐멘터리에서 어떠한 삶의 위로를 받기 어려웠다. 다큐멘터리 속 인물들의 슬픔에 대해 공감은 할 수 있었으되, 그들이 겪는 잔혹한 현실에는 눈을 돌려버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삶에 서툰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드라마들은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현실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이상적인 면을 거부하지 않는다. <미생>이 새로운 무역회사에서 일하는 장그래와 오차장의 모습으로 끝을 맺는 것처럼 말이다. 만약 <미생>이 판타지였다면 둘은 원인터내셔널을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미생>이 다큐멘터리였다면 둘은 퇴사 후 비정규직을 전전했을 것이다. 이처럼 미생류의 '사실적 드라마'들은 너무 이상적이지도, 너무 현실적이지도 않게 나아간다. 그래서 나는 이것으로부터 위로받는다. 나 같이 어설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에, 그리고 현실에도 어떤 기준이나 희망이 있음에.

10월 17일의 신입사원 장그래는 드라마가 끝나는 12월 20일 유능한 영업사원으로 성장한다. 그의 모습을 보며 나는 희망을 품어본다. 훗날 10월 20일의 내가 어설피폰을 벗어버린 때 마치 저 '사실적 드라마'들처럼 너무 이상적이지도, 너무 현실적이지도 않게 나아가고 있기를.